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대감 고조… 경영권 분쟁 우려도 커져

정부·정치권, 입법 논의 본격화
자사주 비율 높은 기업 주가 급등
적대적 세력 공격시 방어수단 필요

신영증권(54.49%), NAVER(35.66%), 삼성생명(31.73%), 한화(19.30%), 삼양사(14.90%), 롯데지주(14.43%) 등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가 14~54%가량 올랐다. 업종도 각기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다는 것.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이를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권 보호 사이의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 주요 기업, 자사주 소각 동향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



ChatGPT로 생성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당황하는 모습’

권·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자사주 비율이 30%를 넘는 곳은 16개 기업이다. 이중 거래 정지 상태인 대동전자를 제외한 15개 종목의 기업들의 주가가 이달 들어 1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사주 소각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뒤 백기사에게 파는 등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는 경우가 있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자사주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에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입하는 3조9119억원 어치 자사주 중 2조8119억원은 소각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소각은 가급적 빠

른 시일 내에 적절한 시점을 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1차로 매입한 자사주 3조 원 어치는 지난 2월 전량 소각했다. 이어 2월에 추가로 자사주 3조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이 중 2조5000억원을 소각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5월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 고려아연도 지난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취득했던 자사주 204만주(1조 8000억원 규모)를 연내에 전량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약 15조4000억원)는 이미 지난해 전체 소각 규모(13조2981억원)를 넘어섰다.

자사주비중이 높은 신영증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온 것은 배당성향이 낮은 보수적 경영기조와 장기주주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수단이었다”며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향후 입법 추이를 지켜보며 회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주가치도 좋지만, 속타는 기업들, 점점 찾아야

그러나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에 반갑지 않은 않다.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방

어 수단이 많지 않아서다. 1주일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특정 주식에 의결권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 의결권, 적대적 인수합병(M&A) 때 기존 주주가 싼값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포이즌필 등 외국에선 일반화한 제도 자체가 없거나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있을 뿐이다.

해외 주요국도 강제하는 곳은 많지 않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제외), 영국, 일본 등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독일의 경우 자본금의 10%를 벗어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3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사주의 제3자 처분에 대해 엄격한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에선) 자사주의 자의적 처분을 통한 지배권 강화가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큰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사주에 인정되는 권리 제한, 불공정한 자사주 처분 시 주주 구제수단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하반기 코스닥 반등 가능성… “키 맞추기 장세 나타날 것”

증권가, 정부 정책 등 수혜 분석 “중소형주 상승 탄력 높아질 것”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로 3200선을 바라보면서 유가증권시장 대형주 위주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반면 코스닥 종목을 많이 담은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32%가량 오르며 2021년 7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까지 단 140.31포인트만 남겨뒀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올해 18% 오르는데 그치며 700~800 사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코스닥지수 상승이 코스피에 비해 더딘 이유는 있다.

올해 국내 증시 활황을 주도한 종목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와 조선·방위산업·원전 등 코스피 기업들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최근 부진한 바이오·로봇 등이 주축이다. 시장의 또 다른 축인 2차전기 업황도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매수세도 유가증권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외국인들은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86억원 규모 순매수에 나선 반면 코스닥시장에선 1587억 원어치를 팔았다.

증시 전반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대형주 위주의 투자 심리가 확산한 것도 한 이유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코스닥시장보다는 유가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몰렸고, 이로 인해 두 지수 간 상승률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코스닥 대형주들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는 것도 지수 상승에 부담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스메

카코리아는 코스피 이전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 외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 알테오젠과 예코프로비엠의 이전상장이 거론된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스닥 상장기업의 계속되는 이전상장은 코스닥시장의 투자자 기반과 상장 기업 기반을 위축시키고 국내 모험자본 순환체계의 핵심 인프라로서 위상과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상대적 소외를 겪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 코스닥이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대신증권은 코스닥이 최대 9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삼성증권은 750~890포인트를, IBK투자증권은 84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

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은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에서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이 높을 것”이라고 봤다.

정책 효과의 온기가 퍼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기조가 확인된다면 코스닥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조수홍 NH투자증권 센터장은 “상법 개정 이슈 외에도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 중소기업 친화적 정책 등이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점차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살아나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낸다. /신하은 기자 godhe@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

한국투자증권(대표이사 사장 김성환)은 온라인 금융투자 서비스 뱅크스(BanKIS)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타 증권사에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이전하고 국내·해외주식 거래 조건 충족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오는 18일까지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조기 입고 리워드가 주어진다. 해외주식 순입고 및 국내·해외주식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매주 혜택금이 지급되며 ▲3억원 이상 순입고 시 주당 7만원씩 총 21만원, ▲10억원 이상 시 주당 20만원씩 총 60만원, ▲50억원 이상 시 주당 30만원씩 총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해외주식 1억 원 이상 순입고하고, 국내·해외주식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추가 혜택금이 지급된다. 해외주식 1억 원 이상 순입고 및 국내·해외주식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다음 달 8일부터 11월 7일까지 3개월 간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가 면제되며, 환율 우대 90%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증권가, 삼성전자 ‘매수’ 의견… “3분기 턴어라운드 기대”

주가 상승 속도에는 온도 차

삼성전자가 6만원 대 주가에서 벗어나 ‘7만전자’ (주가 7만원)에 안착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3분기부터는 바닥을 딛고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상승 속도를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종가 기준 5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6월 24일 6만 500원으로 다시 6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6월 30일(5만9800원)을 제외하고는 6만원 선을 유지 중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초호황과 최근의 ‘불장’을 고려하면 상승세가 강한 것은 아니나 2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에도 투자자들의 신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직후 3조9000억 원어치의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한 점 등도 주가 하락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놓았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절대 주가 관점에서 보면 주당순자산가치(BPS) 상승 속 싸게 거래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좋은 주식으로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은 “실적은 2분기 저점을 기록한 뒤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동률 회복에 따른 파운드리

적자 축소가 나타나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의 실적 회복세가 기대된다”고 봤다.

다만 상승세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3분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의 저점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감소하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예측했다. /허정윤 기자